

## 경제학의 전문화와 한계혁명<sup>(1)</sup>

홍기현<sup>(2)</sup>

19세기 말 유럽과 미국 등 각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경제학이 분과학문으로 성립되고 경제학자들의 학회가 창설되며 전문지가 발간되면서 경제학의 전문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한편, 187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한계혁명을 통해서 고전학파가 지배적 사조였던 데서 벗어나, 한계효용 가치론을 비롯하여 한계생산성 분배이론 등 한계분석이 경제문제 분석에 널리 적용되면서 수요공급설을 중심으로 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점점 득세하게 된다. 19세기 말 일어난 경제학의 전문화와 1870년대 초 시작된 한계혁명의 관련성을 탐구한 결과 각국 경제학계의 상황에 따라 양자의 관계는 다르지만, 신고전학파 이론체계의 핵심적 내용을 공유하는 학자들의 교류가 빠르게 일어났고, 이것이 대학 중심으로 정착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계혁명이 시작된 유럽의 경우보다도 후발국인 미국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한계혁명의 전파과정에서 경제학의 전문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전문화, 한계혁명, 신고전학파 경제학, 미국 경제학

---

(1)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작성되었으며, 연구 과정에 도움을 준 정종우 박사와 논문의 초고를 읽고 논평해 준 김석호 박사에게 감사한다.

(2)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hongk@snu.ac.kr)

## 1. 머리말

18세기 말 이후 애덤 스미스 등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의 탐구를 바탕으로 분과과학으로서 시작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제학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1870년대에 일어난 한계혁명(the Marginal Revolution)이라고 할 수 있다. 1870년대 초 영국의 제본스(W.S.Jevons), 스위스의 왈라스(Leon Walras), 오스트리아의 멩거(Carl Menger)가 거의 동시에 한계효용 가치론을 활용하여 가격을 수요측면에서 설명한 이후 미분법을 적용한 한계분석(marginal analysis)을 바탕으로 경제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한계혁명은 이를 후대의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여 재화의 가격과 생산요소의 가격을 수요공급설이란 일관된 이론체계로 설명하는 신고전학과 경제학<sup>3)</sup>이 경제학계에서 우세한 접근법으로 정착된 사건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학의 커다란 변화과정은 한 세대 정도의 짧은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1870년대 이전의 유사한 연구 성과가 있었고, 1890년대에 이르러 한계분석을 분배 문제 등 다양한 경제문제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통하여 그 연구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확산된 것이다. 아울러 한계혁명 전후의 경제학계를 볼 때, 이론적 전환이 한 이론에서 다른 이론으로 바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즉, 공급중심의 생산비설을 기반으로 한 고전학과 경제학에서 신고전학과 경제학으로 경제학의 이론체계가 곧바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역사학과, 제도학과, 마르크스 경제학 등 다양한 대안적 이론체계 중에서 점차로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경제학계의 공통적 연구계획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또한, 한계주의적 분석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연구자들의 구체적인 이론적 특성이 동일한 것도 아니었다. 강명규(1973)의 논문 및 Black 등(1973)의 논저에서 밝혔듯이, Jevons, Walras, Menger는 한계주의적 접근을 활용하는 정도가 그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서 한계혁명이 왜 발생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달성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Blaug (1985)는 한계혁명의 발생 원

(3) 여기서 말하는 신고전학과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은 1870년대 이후 등장한 한계주의적 분석을 사용한 미시경제학의 지배적 사조를 말한다. 이 용어는 좁게는 고전학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한계효용 가치론을 수용한 영국의 마셜이 주도하는 케임브리지학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가격이론에서 한계주의적 분석이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에서도 적용되면서 193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경제학의 지배적 사조가 여러 나라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가격이론의 지배적 흐름을 신고전학파라고 부르고 있다.

인을 교과서적으로 정리하면서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이론 발전을 오류에서 진리로 나아가는 절대주의적 접근(the absolutist approach)의 설명으로서, 고전학과 경제학의 오류를 수정한 이론으로서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나머지 세 원인은 이론 변화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는 상대주의적 접근(the relativist approach)인데, 거기에는 i) 프로테스탄트적 문화에서 노동을 중시하던 노동 가치설에서 카톨릭 신학에서 효용을 중시하는 효용가치설적 대안이 나왔다는 것, ii)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하자 소비자 선택의 영향이 커지면서 수요측면의 가격론이 나왔다는 것, iii)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회주의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옹호론으로서 수요공급설이 나왔다는 것 등의 해석이 포함된다.

Blaug가 지적하는 네 가지 원인은 물론 부분적으로 타당한 설명이지만, 한계혁명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미흡하다. 먼저 절대주의적 접근은 이론의 개선 과정을 설명해주지만, 커다란 이론체계의 전환을 설명하기는 힘들다. Kuhn (1977)의 과학 방법론에서도 말하듯이, 과학의 선택 기준은 단순히 오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범위, 연구 성과의 발전 가능성, 전달의 단순성이 영향을 주는 것이다. 상대주의적 접근의 경우에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맞지만, 환경이 이론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다양하므로 부분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1890년대 즈음 일어난 경제학의 전문화 (professionalization)에 초점을 맞추어, 한계혁명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한 분과과학으로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등장, 전문가들의 모임인 학회의 형성, 그리고 경제학 전문지를 통한 이론의 소개와 지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경제학 연구의 성과를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이 성립되는 것이 이론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전문가로서 경제학자들이 학문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서로 동의가 빠르게 일어난 주제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연구방법론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이 이론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한다. 홍기현(2010)에서 사용한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분류를 적용하자면, 신고전학파의 경우 다른 분과과학이나 다른 경제학과에 비해서 연역적(deductive)이고 개별주의적(individualistic)인 연구방법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에 따라 탐구된 연구결과로서 가격형성과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대해서 경제학자 간에 상대적으로 빠른 동의(consensus)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동의된 내용들이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되면서 경제학의 특성이 일정한 방향으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해당 목적을 위해서 다음 제2절에서는 전문화의 영향에 대한 일반적 프레임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Lakatos (1978)의 연구계획방법론과 의사소통에 관한 각종 이론들이 활용될 것이다. 이론체계는 실증적 검증대상이 되지 않는 중핵(hard core)과 보호대(protective belt)로 구성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중핵이 형성되면서 이에 부합하는 이론들이 빠르게 공통적 이론으로 정착되었다는 것, 나아가 신고전학과 경제이론의 경우 국가적 차이를 떠나서 수학 등을 사용하여 전문가 간에 소통이 정확하게 달성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전반적인 한계혁명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전문화 이전 및 이후의 단계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870년대 이전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개별적 한계분석적 성과들은 학계에 공유되지 못하고 후대에 간접적으로 전달되었던 반면, 1870년대 이후, 특히 1890년대에는 연구 성과들이 전문 학술지를 통해서 바로 알려지면서 연구자 상호 간 인용 및 논의 시 공통적인 생각들이 빠르게 공유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유럽 각국의 한계주의적 분석이 어떻게 개발되고 전파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19세기까지 경제학의 중심이었던 영국의 경제학계를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프랑스와 독일 문화권의 경우도 함께 소개하려고 한다.

제5절에서는 문화적으로 후발국인 미국 학계의 전문화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계주의자들이 점차 대학에서 득세하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려고 한다. 특히 대학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새로운 조류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자리를 잡게 되고, 1930년대 이후 유럽의 우수 학자들이 이주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결국 서구 학문의 중심이 된 미국에서 신고전학파가 주류경제학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6절에서는 전문화 과정과 한계혁명의 관련성에 대한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2. 과학방법론과 이론의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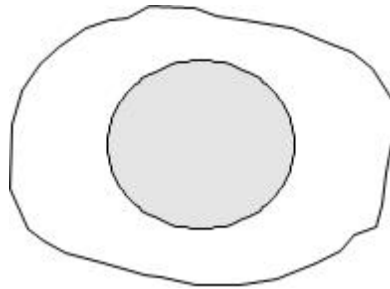
### 2.1. 신고전학파 과학연구계획론

신고전학파의 등장을 과학사의 연구방법론에 따라 설명하는 데는 Imre Lakatos의 과학적 연구계획(scientific research program)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과학사 연구가 심화되기 전까지는 대체로 실증주의(positivism)에 따라 과학은 사실에 부합하는 일반적 설명원리라고 정의하면서, 사실 부합성과 설명의 일관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생각했다. 이에 대해서 Kuhn (1970)은 과학의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가설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 공동체가 공유하는 패러다임(paradigm)에 의해서 일어나며,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가 과학혁명(scientific revolution)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뉴턴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처럼 관찰자의 시점이 빠른 속도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는 시점의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많은 과학자가 연구할 때 실증주의적 관행에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며, 이론의 변화도 기각되지 않은 가설을 중심으로 점진적 발생을 주목할 때 Kuhn의 패러다임을 인용하여 모든 과학 활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 Lakatos는 실증적 검증이 가능한 영역과 검증이 불가능한 선형적 영역의 두 가지로 과학이 구성되어 있다는 절충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Lakatos에 따르면 과학이란 검증대상이 되지 않는 중핵(hard core)과 중핵의 특성에 따라 실증적 가설을 제시하는 보호대(protective belt)로 구성된다. 보호대에는 중핵의 특성에 따라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 발견 장치(positive heuristic)와 중핵의 방향에 어긋나는 탐구를 억제하는 소극적 발견 장치(negative heuristic)로 구성된다. 따라서 중핵의 방향에 따라 제시되는 복합적 가설이 기각된다면, 보호대 영역의 보조적 가설은 수정되겠지만 중핵의 영역의 가설체계는 기각되지 않고 새로운 보조 가설을 통해서 살아남는 방식으로 과학적 탐구가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계획은 보호대의 영역을 넓혀서 연구의 범위가 넓어지는 방식으로 발전해나갈 것인데, 이때 i) 연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과학이 발전한다면 그러한 과학은 이론적으로 발전적(theoretically progressive)이라 평가되며, ii) 이러한 탐구의 결과가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경험적으로 발전적(empirically progressive)이라고 평가된다. 이와 같은 과학적 탐구의 과정에서 여러 과학적 연구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 Lakatos의 과학적 연구계획

획이 공존하며 서로 경쟁할 수 있는데, 만약 어떤 과학적 연구계획의 탐구 결과 또는 보호대가 다른 과학적 연구계획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압도된 이론체계는 서서히 소멸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학적 연구계획의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이 된다.

〈그림 1〉에서 흐린 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중핵에 해당되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대는 중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특정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핵은 Kuhn이 말하는 패러다임과 같이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를 추동하는 선형적 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보호대는 이에 따라 추진되는 실증주의적 과학 탐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의 크기가 결국 과학적 연구계획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이제 Lakatos의 과학적 연구계획 방법론을 경제학에 적용하면, 경제학에서 비중 있는 다수의 연구자가 출현하여 상호 교류하는 학파들은 어느 정도 과학적 연구계획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수의 경쟁학파 중 점차 세력을 넓혀간 경우는 이론적·경험적으로 발전하는 연구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신고전학파의 과학적 연구계획은 가장 성공적인 연구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전학파 연구계획이 1870년대를 시발점으로 성공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이 한계혁명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송현호(1982)에 따르면 신고전학파(the Neoclassical school)의 과학적 연구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NC1) (중핵) 경제문제에 대해서 경제주체는 잘 계산된 판단에 따라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취한다.

〈표 1〉 과학방법론의 분류에 따른 학파별 위치

분류	좀 더 귀납적	좀 더 연역적
방법론적 개체주의	A. 오스트리아 학파	B. 신고전학파
방법론적 전체주의	C. 역사학과, 제도학과	D. 마르크스 경제학

출처: 홍기현(2010), p.145.

**(NC2) (적극적 발견장치)** 경제문제를 판단할 때 개인이 목적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합리적 행동을 하는 이론을 제시하라.

**(NC3) (소극적 발견장치)** 개인의 합리적 행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관습이나 제도가 기본적 요인이라고 설명하지 마라.

위와 같은 연구계획에 따르면 생산, 소비, 분배 등 주요한 경제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경제주체의 개별적 선택을 출발점으로 하여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접근법이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특성이 된다. 반면,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속하지 않는 다른 경제학적 조류는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특성 중 어떤 다른 것을 중요한 설명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신고전학과 이전의 경제학적 주된 탐구인 고전학과(the Classical school)에서는 경제주체가 유인체계(incentive)에 반응한다는 일반적인 경제원리는 지지하지만, 소비는 관습적으로 정해지거나 분배는 계층별 힘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방식을 주요한 설명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전학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역사학과(the Historical school) 및 제도학과(institutionalism)는 전통과 역사가 규정하는 규범(norm)이 경제문제 설명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통적인 과학 방법론의 틀에서 보더라도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다른 학파나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좁은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신고전학과는 인간의 합리적 행동이라는 핵심 가설을 시발점으로 하여 경제 행동을 연역적으로 설명하며, 개별적 행동을 관찰의 출발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른 학파와 다르다. 역사학과의 경우에는 민족이나 국가를 단위로 하여 경제의 전체적 변화를 먼저 관찰한 후 개인의 행동을 이에 맞추어 귀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으며, 마르크스 경제학의 경우에는 집단적 이익을 기준으로 연역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차이점을 다음 〈표 1〉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sup>(4)</sup>

(4)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우 광의의 신고전학과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가격 및 분배이론을 제외하고 시장경쟁이나 제도적 설명에 있어서 진화론적 접근을 하고 있고 불확실성하에서 개

## 2.2 과학적 연구계획의 형성과 전파

Lakatos의 과학적 연구계획론의 틀을 이론의 형성과 전파에 대해서 적용해보면 한 계획명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먼저 이론의 형성 면에서 생각해보면 과학적 연구계획이 생성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통 관심사를 갖는 과학자 공동체의 긴요한 집단(critical mass)의 숫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자 상호 간에 지속적인 연구 성과의 공유와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호 교류를 위한 절차가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고전학과 시대에 영국에서 먼저 경제학의 탐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바로 연구자의 숫자와 상호 교류가 일찍 시도된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20년대에 리카도(David Ricardo), 맬더스(Robert Malthus), 제임스 밀(James Mill) 등은 정치경제클럽(Political Economy Club)을 만들어 경제문제에 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 바 있다.<sup>(5)</sup> 그렇지만, 이들의 논의는 대학을 중심으로 경제학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비해서는 산발적인 면에서 교류의 집중도는 낮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Ricardo와 Mill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 전업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탐구자는 아니었고, Ricardo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관심사도 각종 사회 문제에 넓게 퍼져 있어서 경제문제에 탐구를 집중하는 정도도 약했다. 그 때문에 고전학과 경제학이 신고전학과 경제학과는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sup>(6)</sup> 과연 Lakatos가 말하는 과학적 연구계획 또는 엄밀한 의미의 학파(school)를 형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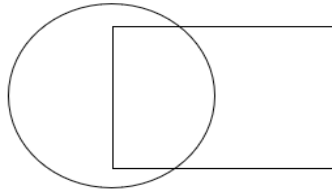
이론의 전파와 정착 면에서 보더라도 전문화는 과학적 연구계획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각기 다른 관심을 가진 이론가의 탐구 범위와

인의 행동에 있어서는 경험적 관찰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더 귀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5) Political Economy Club은 1821년에 제임스 밀의 주도로 19명이 참가하여 경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는 모임으로 결성되었는데, 참여 인원을 제한하는 모임으로서 학회라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참여 인원 중 경제학적 업적을 남긴 사람은 J.Mill, Malthus, Ricardo, Tooke, Torrens 정도였으며, 다수의 정치인이 참여하고 있었다.

(6) Samuel Hollander (1987)는 고전학과 경제학이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다르다는 통상적인 해석을 비판하면서, 애덤 스미스 이래 고전학과 경제학은 신고전학과 마찬가지로 가격 결정을 통한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에 관심을 갖고 연속적으로 연구를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특별히 한계혁명 존재하지 않고 고전학과와 신고전학과와의 차이는 관심사의 집중도라는 정도 차이가 된다. 그러나, Hollander의 견해는 경제학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소수 견해라고 생각되어 필자는 고전학과와 신고전학과와의 이론체계가 다르다는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 과학적 연구계획상 중핵의 형성

결과에 있어서 공통으로 동의하는 이론체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과학자 공동체가 공유하는 강한 방법론적 절차와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탐구의 결과에 대해서 빠른 성과 공유와 환류(feedback)가 필요하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각자 다른 관심을 가진 경제학자들이라 하더라도 전문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통된 영역에 대해서 논의를 집중하게 된다. 〈그림 2〉에서 원으로 된 영역의 이론적 관심을 가진 학자와 네모로 된 영역을 관심을 가진 학자가 서로 논의하는 경우 공통된 관심사와 동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되, 그 영역을 차츰 넓혀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공통된 부분을 찾아가기 시작하게 되며, 아주 다른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분과학문의 공동체나, 서로 다른 학파를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분과학문의 성립으로 귀결되는 전문화는 특정한 방향으로 과학적 연구계획이 형성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문화를 통해서 유사한 과학적 방법론, 절차, 이론적 특성을 가진 학자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특정한 분과학을 성립시키는 경향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과학적 방법론이나 관심사가 크게 다르다면 동일 분과학문에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며, 관심사는 유사하되 연구 절차가 다른 정도라면 동일 분과학문에서 경쟁적 이론체계가 될 것이나 지속적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진다면 가급적 동일 방법론 및 연구 절차, 관심사가 생기도록 하는 압력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전문화를 통해서 과학적 탐구 절차나 이론적 내용이 과학 방법론상 반드시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특정한 내용을 가진 이론체계가 빠르게 형성되고 학계의 지배적 사조가 된다면 그러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립되는 체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분과학문으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문화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870년대를 전후하여 공존

하는 여러 경제이론 체계 중에서 전문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우세한 접근법으로 나타날지를 미리 알 수 없고, 특정한 환경과 개별적 성과들의 확산 정도를 보고 사후적으로 득세하게 된 요인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과학적 연구계획의 형성이란 틀을 놓고 볼 때, 과학자 간 동의와 탐구 결과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Kuhn (1977)의 과학 선택의 기준에서 실증주의적 기준인 사실 부합성과 일관성 외에 다른 요소들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의 범위(scope), 연구 성과의 풍부성(fruitfulness), 그리고 단순성(simplicity)이라는 비실증주의적 기준 세 가지 중에서 단순성이 상호 교류에 있어서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이론을 개발하거나 다른 관심사를 가진 사람 간의 의견 교환에 있어서 단순한 아이디어가 더 잘 전달된다('Simple ideas travel fast')는 점은 흥미로운 점이다. 인지과학에서 볼 때 인간의 인식에 있어서 특정한 프레임(frame)이 작용하며 이 프레임은 단순할수록 이해되기 쉽기 때문이다.

나아가 단순성이란 요인은 서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경우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고전학과와 다른 경쟁적 이론체계를 비교할 때 각기 다른 문화적 차이는 설명하기 복잡하고 전달되기 어렵지만 간단한 수학적 방정식으로 표현된 이론은 수학이라는 도구의 문턱만 낮아진다면 쉽게 이해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과학의 발달과 수학 교육의 전파와 함께 신고전학과 경제이론인 수학을 매개로 하여 여러 나라에 걸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간에 점차 전파되기 쉬워졌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3. 전문화 측면에서 본 한계혁명의 추진 과정

#### 3.1. 한계혁명의 선구자들(pioneers)

한계혁명이라고 일컫는 경제이론 상의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친 경제학적 탐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계혁명의 추진자로 평가되는 3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 이전의 업적에 약간의 의존을 하면서 한계혁명 가치론을 도입하여 이론체계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계혁명 이전에 유사한 이론적 업적을 개발한 탐구자들을 한계혁명의 선구자라고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선구자라고 하는 의미에는 시기적으로 3인의 업적에 비해서 앞섰다는 점, 이들도 상당한 정도로

〈표 2〉 한계혁명 선구자들의 주요 경력

성명	년도	활동 국가	주요 경력	경제학적 업적
A.Isnard	1849-1803	프랑스	도시 건설 기사	교환이론에 대한 수학적 설명
A.Cournot	1801-1877	프랑스	Dijon대학 등 수학 교수	한계수입 개념을 이용한 독과점 기업 이론
A.Dupuit	1804-1866	프랑스	파리 건설국 엔지니어	한계편의 개념을 이용한 투자이론
W.Lloyd	1795-1852	영국	Oxford대학 교수	한계효용 체감에 의존한 가격 설명
S.Longfield	1802-1884	영국	법관, 법학 교수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 설명
H.Jenkin	1833-1885	영국	Edinburgh대학 공학 교수	수요공급설에 대한 기하학적 설명
H.Thünen	1783-1850	독일	농장 경영자	위치지대론 및 한계생산성 분배이론
H.Gossen	1810-1858	독일	관리 및 경영자	한계효용체감 및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H.Mangoldt	1824-1868	독일	Freiburg대학교수	균형가격, 국제무역가격 등 설명

출처: Blaug and Sturges (1983) 경제학자 인명사전 각 항목.

혁신적인 이론을 개발하였다는 점, 그리고 직후에 곧바로 다른 업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후대에 다시 평가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 포함된다.

한계혁명의 선구자로 분류되는 탐구자들의 업적이 곧바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후대에 그 의의가 재평가된 사유는 당시 해당 탐구자들의 환경이나 경력을 감안했을 때, 이론적 업적을 이어서 계속 개발할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구업적이 계승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이론적 업적이 훌륭하지 못해서라기보다, 주로 경제학의 전문화가 일어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활발한 지적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학사의 주요 저작에서 언급되는 한계혁명 선구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표 2〉에서 언급된 연구자 중에서 후대의 경제학자들에게 교육이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직접 영향을 준 사람은 없다. 저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계주의적 경제 분석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것도 사후에 알려지거나 문헌을 재발견하는 경우

가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탐구 자체가 혁신적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몇 사람의 대표적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랑스의 꾸르노(A.Cournot)의 경우에는 1838년에 발간된 「부에 대한 이론의 수학적 원리에 관한 연구(*Recherches sur les principes mathématiques de la theorie des richesses*)」란 책에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독과점 기업의 생산량이 정해진다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물론 Cournot는 독과점 기업의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경험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이 원리를 도출하였고, 수요곡선을 한계효용을 통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으므로 한계효용 가치론의 개발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Cournot의 설명은 독과점 기업의 행동을 미분법을 사용하여 설명한 최초의 분석으로서, 균형 상태에서의 독과점 기업의 조업 수준을 Cournot균형(Cournot equilibrium)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의 곱센(H.Gossen)은 1854년에 발간된 「인류의 교역에 관한 법칙과 이에 따른 거래에 관한 규칙의 발전(*Entwicklung der Gesetz des Menschlichen Verkehrs und der Daraus Fließenden Regeln fuer Menschliches Handeln*)」이란 책에서, 어떤 활동에 자원을 많이 투입할수록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인 한계효용(Grenznutzen)은 체감한다는 원리와 이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소비할 때 각 활동에서 얻는 한계효용이 균등하도록 배분해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 두 가지 원리는 후대에 Gossen의 제1 법칙 및 Gossen의 제2 법칙이라고 불리며 한계효용 가치론을 정확한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튀넨(Thünen)은 「토지경제와 국민경제와 관련된 고립국(*Der Isolierte Staat in Beziehung auf Landwirtschaft und Nationaloekonomie, 1826-63*)」이란 3권으로 구성된 책에서,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위치 지대 개념을 이용하여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적게 드는 작물이 경작되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Thünen은 자영업자를 상정하고 이윤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임금이 생존비 수준의 최저임금(a)과 1인당 평균생산(p)의 기하평균으로 책정되어야 함을 분석하였는데, 적정 임금(w)을 나타내는 공식( $w = \sqrt{ap}$ )은 사후에 Thünen의 묘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를 Thünen의 묘비공식(tombstone formula)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한계분석의 선구적 업적이 현대적 관점에서도 상당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전수되어 지속적으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3.2. 한계혁명의 추진자 3인

한계혁명은 1870년대 초에 독립적으로 영국의 제본스(W.S.Jevons), 스위스의 왈라스(Leon Walras), 오스트리아의 멩거(Carl Menger)가 한계효용 가치론을 이용하여 가격을 설명하고 시장가격의 움직임을 통해서 경제를 설명하는 이론체계를 수립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해석된다. 이 세 사람을 한계혁명의 트리오(trio)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유사한 이론을 발표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계주의 분석의 공통된 특성이 형성되었으며, 공통점을 중심으로 신고전학파가 정착된 과정이 한계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과정은 결코 순탄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각자의 이론적 업적을 비교하여 살피고, 공통점 및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계혁명 추진자 3인의 대략적인 경력과 연구업적은 <표 3>에서 간단히 설명한다.

먼저 영국 Jevons의 연구 경력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Jevons는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화폐주조국에서 시금 분석가로 일하다가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경제학을 공부한 학자이다. 그는 영국의 상황과 다른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다가, 유한한 자원인 석탄 문제에 관한 책을 발간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후 순수 경제이론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1871년에 발간한 「정치경제학이론」에서 고전학과 경제학의 가격이론을 비판하였다. 즉, 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생산비설에 의존한 가격 식(가격=이윤+임금)을 제시하는데, 임금은 생존비에 의해서 설명되고, 이윤은 가격과 임금의 차액(가격-임금)으로 변환되지만, 결국

<표 3> 한계혁명 추진자 3인의 경력

성명	연도	학력과 경력	주요 저작	업적
W.S. Jevons	1835-1882	University College 석사, Manchester대학 교수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1871)	한계효용을 이용한 가격 결정, 한계분석을 이용한 이자 및 임금 이론
Leon Walras	1834-1910	파리대학 졸업, 스위스 Lausanne대학 교수	Elements d'Economique Pure (1874)	한계효용을 이용한 수요 함수 도출 및 일반균형 분석
Carl Menger	1840-1921	Cracow대학 법학 박사, Vienna대학 교수	Grundse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1871)	한계효용가치론 및 화폐 이론

출처: Blaug and Sturges (1983), 각 항목.

한 가지 방정식에서 가격과 이윤을 설명하는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Jevons는 이러한 논리적 문제는 엄밀한 수학적 분석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며, 경제 현상의 주요 변수들은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므로 수학적 설명이 적합한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Jevons는 고전학파에서 부족한 방정식을 결국 한계효용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어진 자원 내에서 가격 비율을 한계효용의 비율과 같은 조건을 이용하여 수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조건이 바로 유명한 Jevons의 교환방정식(equation of exchange)이다.

Jevons는 2명의 교환 주체가 초기에 각각 a와 b만큼의 두 재화를 갖고 있을 때, a를 갖고 있는 사람이 x만큼을 b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반대로 b를 갖고 있는 사람이 y만큼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2인2재 경제를 상정하고 있다. 이 때, 균형 상태에서 첫 번째 사람은 결국 첫 번째 재화 (a-x)만큼과 두 번째 재화 y만큼을 소비할 것이므로, 분리 가능한 한계효용함수를 u, v라고 한다면 한계효용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람은 x와 (b-y)만큼을 소비하므로, 한계효용의 비율이 교환 비율( $\frac{y}{x}$ )이 같아지는 교환방정식이 도출된다.

$$(3.1) \quad \frac{u(a-x)}{v(y)} = \frac{u(x)}{v(b-y)} = \frac{y}{x}$$

이 교환방정식은 변수가 x, y 두 개이며, 한계효용균등의 조건에서 주어지는 방정식이 두 개이므로, x와 y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Jevons는 초기 부존량에서 균형 상태에 이르기까지 적은 양을 나누어 거래 하더라도 교환 비율과 균형 상태의 교환 비율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미분 기호를 써서 다음의 식이 성립해야 한다. 이를 교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의미에서 무차별의 법칙(law of indifference)라고 부르고 있다.

$$(3.2) \quad \frac{dy}{dx} = \frac{y}{x}$$

Jevons의 식을 보면 그의 가격 이론체계의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는 Jevons가 두 재화의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결정되는 일반균형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균형점에서 벗어난 거래가 발생하면 초기 상태에서 균형 상태가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1물1가의 법칙이 거래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Negishi (1989)는 Jevons가 (3.2)로 표현되는 무차별의 법칙을 도입한 이유가 균형점만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형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려 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Jevons의 업적은 현대 미시경제이론과 일맥상통하다고 하겠으나, 당시 영국의 경제학계는 케임브리지대학의 마셜(Alfred Marshall)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Marshall은 Jevons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Marshall은 한계주의적 분석이 추상적인 가정하에 소비 수요를 설명할 때는 효과적이지만, 공급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기술변화가 가격에 주는 영향이 불투명하여 장기적인 가격 결정을 설명할 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고전학파의 전통과 새로운 분석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경제학적 탐구를 진전시켰기 때문에 Jevons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다음으로 Walras의 연구 경력을 살펴보겠다. Walras는 파리대학에서 문학과 수학을 공부했는데 점차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늦은 나이에 프랑스 문화권인 스위스의 로잔느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Walras는 Jevons와 마찬가지로 고전학파 이론이 가격설명에 미흡하다고 생각했으며, 과학으로서 경제학은 수학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식시장과 같이 빠르게 균형 상태가 달성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연립방정식을 써서 여러 재화의 가격이 동시에 결정되는 일반균형 상태를 설명하는 이론체계를 제시했다.

Walras는 1874년에 발간된 「순수정치경제학요론」에서는 ‘상품의 소비된 양에 의해 충족되는 마지막 필요의 강도<sup>(7)</sup>’인 희소성(rarete)에서 도출되는 수요와 고정투입계수를 상정한 상태에서 각종 생산요소를 이용해서 생산되는 공급이 일치하는 방정식을 나열하고, 방정식의 개수와 상대가격 및 거래량의 개수가 일치함을 보임으로써 일반 균형 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 책의 제4판에서는 생산요소 간에 대체가 가능한 경우 한계생산성에 따라 정해지는 요소 수요량의 합과 요소 부존량이 일치하는 요소 시장의 균형식들을 추가하더라도 방정식과 변수의 개수가 일치하는 점은 변화가 없음을 추가하였다.

(7) Walras의 책을 번역한 이승무 박사는 번역본 p.114에서 rarete를 희소성이라고 직역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 이후 경제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계효용과 같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Walras는 완전경쟁 상태에서 시장이 잘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로잔느대학은 학문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출신의 빠레토(Vilfredo Pareto) 등 몇 명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뿐, 순수경제학요론도 1954년에 영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준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이후 미시경제학의 이론체계는 Walras의 일반균형분석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결국 주류경제학의 핵심 이론이 되었는데 과학사적으로는 그 이유는 Walras 이론의 논리적 일관성과 단순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 문화권의 Menger를 살펴보면, Jevons나 Walras와 약간 다른 방향에서 한계주의적 분석을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Menger는 영국 고전학과 경제학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목적보다는 독일 문화권에서 지배적이었던 역사학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Menger는 불확실성 하에 개인의 선택은 결국 시장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므로, 시장의 조정과정을 통하지 않고 경제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개인이 모든 정보를 갖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국지적인 정보를 갖고 판단하는 개인의 행동들이 조정되면서 시장경제가 작동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즉, 시장은 불완전하지만 다른 대체 방식보다는 결과적으로 적절하게 경제문제에 대처하도록 진화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화폐는 시장 거래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줄이도록 선별되어 발생된 것이라는 화폐 이론을 제시했다.

Menger는 이미 독일 문화권에서 개발되어 있던 한계효용 가치론을 바탕으로 최종소비재의 선택을 설명하고, 나아가 최종소비재에 대한 수요로부터 생산요소의 수요가 파생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배 소득도 결국 최종소비재의 수요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귀속이론(imputation theory)를 제시했다. 그렇지만 여러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면서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는 것을 거대한 이론체계를 통해 설명하기보다, 개인 선택과 경제변수 간의 부분적인 관련성을 탐구하는 것을 주로 시도했다.

Menger의 업적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 학자에게 전수되었고, 독자적인 학파를 형성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1930년대 이후 이론적 발전이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자유주의적 사상이 주로 영향력을 남기게 되면서, 이론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한계혁명 추진자 3인의 특징을 비교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 <표 4>



〈표 4〉 한계혁명 추진자의 비교

항목	Jevons	Warrals	Menger
기존 학파와의 관계	고전학과 가치론 및 생산이론에 대해 비판	고전학과 가격이론 비판	독일 역사학과와 방법논쟁
가격이론의 특징	일반균형분석이지만, 균형점 밖의 거래도 고려 시도	일반균형이론이며, 균형 상태 분석 치중	변수 간 인과적 관계 설명 시도
수학의 사용	경제변수가 수량 변수이므로 수학(미적분학) 사용 당연시	연립방정식을 사용한 가격체계 설명	인간행동을 수학으로 설명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봄
후대에의 영향	Edgeworth등 일부에만 영향	Pareto등 몇 명에게 영향을 줌	오스트리아학파의 시조(오스트리아학파 자체가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함)

출처: 저자 작성.

와 같다. 〈표 4〉에서는 주로 3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한 후, 공통점에 대해서는 전문화와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4〉에서 보듯이 Jevons, Warrals, Menger는 이론의 지향점이나 수학의 사용, 그리고 학계에서의 위상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계혁명에서는 3인의 공통점인 한계효용 가치론과 요소가격을 소비재 가격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일관된 가격이론 체계가 후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결국 개별적 차이점보다 쉽게 추출할 수 있는 공통점이 신고전학파의 공통 자산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학의 전문화 관점에서 한계혁명 추진자 3인의 연구 경력과 업적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이들 3인 모두 대학교수로서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혁신적이면서 상당히 체계적인 책을 발간하여 한계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이론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이들의 연구 경력을 볼 때 가격이론에만 집중하여 아주 정밀한 이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기보다, 가격이론을 어느 정도 정립한 후 여러 사회경제 문제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한 점을 알 수 있다. Jevons는 석탄의 고갈 문제, 기상학, 경제변동, 천문학 등을 연구했으며, Warrals는 독점의 문제, 경제체제의 문제 등을 탐구하는 등 광범위한 사회사상 체계를 만들려고 했다. Menger는 법학 교수로서 사회질서와 인간 행동 관계에 대한 관심의 하나로서 경제문제를 탐구하여 상당히 넓은 관

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현대의 오스트리아학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분산으로 인해서 한계분석을 이용한 이론들의 추가적인 발전은 다음 세대에 걸쳐서 계속되며, 다음 세대에서는 개별적 차이보다 공통점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이론이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한계혁명 추진자 3인의 경우 각각 독립적으로 한계효용 가치론을 개발하였지만, 직접적으로 교류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들 모두 경제학계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Jevons와 Walras의 이론을 직접 배우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소수였으며, Menger의 경우는 비엔나대학에서 상당수의 연구자를 배출한 것은 맞으나 오스트리아학파 자체가 그 이후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언어면에서도 교류의 제약이 발견된다. 즉, Walras의 저작은 1950년대에 가서 영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고, Menger의 저작은 1970년대에 영어로 번역되었다. 물론 독일어는 앞선 문화로서 영어문화권에서도 전문 서적을 읽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학 전문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자연과학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근대문명의 기반이 되는 지식은 자연과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발생하였으며, 자연과학이 대학에서 제도화되는 과정이 사회과학이 분과과학으로서 성립되는 과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전학파에서 신고전학파로 전환되는 과정인 한계혁명의 원인이라는 문제에 한정해서 볼 때, 자연과학의 영향이 한계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근대문명의 성립 시기에 자연과학 중에서 세계관에 가장 영향을 뉴턴 물리학을 예를 들더라도, 애덤 스미스의 자연 질서(natural order)에 대한 사고에서 보이듯이 뉴턴 물리학이 경제학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한계혁명을 촉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뉴턴 물리학은 고전학파를 포함하여 경제학 전반에 큰 영향을 준 것이나, 신고전학파로의 전환을 촉발했다고는 하기 힘들다. 수학의 발전도 마찬가지다.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미적분법(calculus)은 18세기 초에 개발된 것으로서 19세기 중엽 이후의 경제학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말한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Mirowski (1989)의 저작, 「빛 보다는 열(*More Heat than Light*)」이 많은 시사점을 준다. Mirowski는 뉴턴 물리학보다는 1840년대에 열역학(thermodynamics)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된 동적 최적화(dynamic optimization)

이 신고전학파적 사고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열역학 제1 법칙인 에너지보존의 법칙과 제2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신고전학파적 경제문제인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란 문제를 설명하는 원리에 관심을 갖도록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전환이 결국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미적분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경제학도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연역법에 의존하는 과학 방법론을 채택하도록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회과학과 달리 경제학이 가장 자연과학에 유사한 모습으로 진전된 것도 이러한 과학 방법론의 채택과 관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3. 한계주의적 분석의 확장

1870년대 한계효용 가치론을 개발하여 가격이론체계를 제시한 3인의 연구자 이후에 다수의 연구자가 한계분석을 활용하여 경제문제를 탐구하였다. 대체로 이들의 연구업적이 1890년 전후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연구 성과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의 연구 경력을 볼 때 영국의 마셜(Alfred Marshall)은 한계혁명의 3인조보다 더 앞서고 한계효용 가치론도 1860년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rshall은 영국 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고전학파 경제이론과 새로운 한계효용 가치론을 절충하여 이론체계를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경제학의 변화를 정착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한계혁명의 추진자로 분류되지 않고, 신고전학파를 정착시킨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한계주의적 분석을 확장하는데 기여한 학자들을 정리한 것이 <표 5>이다.<sup>(8)</sup>

<표 5>에서 보듯이 1870년 이후 1890년과 20세기 초에 한계주의적 경제이론은 재화 가격뿐만 아니라 이윤, 이자 등 요소 가격 및 시간에 따른 자원 배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영미 문화권에서 실질적으로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표준적 교과서를 발간하고 연구의 방식을 정한 Marshall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영국 중심의 고전학파 경제학에서 구미 각국으로 경제학 연구가 확산되어 경제학의 국제화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학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이 시기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학적

(8) 시기적으로 볼 때 Wicksell, Clark, Fisher가 연구 성과를 발표한 늦으며, 학문적 성과의 순서로 볼 때도 명백하게 앞선 학자들의 업적에 의존하여 이론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Rima (1978)는 이들을 제2세대의 한계주의자(Second Generation Marginalists)로 분류하고 있다.

〈표 5〉 주요 한계주의자

성명	연도	국가 및 학파	경력	저작	경제학적 기여
Alfred Marshall	1842-1924	영국 케임브리지학파	Cambridge 대학 교수	Principles of Economics (1890)	시간 개념을 도입한 부분균형적 가격이론 완성
A.C. Pigou	1877-1959	영국 케임브리지학파	Cambridge 대학 교수	Wealth and Welfare (1912)	후생경제학 개발
F. Y. Edgeworth	1845-1926	영국	Oxford대학 교수	Mathematical Psychics (1881)	무차별곡선 개발과 소비자 행동 분석
F. Wieser	1851-1826	오스트리아 학파	Vienna대학 교수	Der Natuerliche Werth (1889)	시장경제에서의 가격결정과 분배(귀속이론)
E.Böhm-Bawerk	1851-1914	오스트리아 학파	Vienna대학 교수, 재무 장관	Kapital und Kapitalzins (1884-1912)	자본 및 시간할인 이자이론
V.Pareto	1848-1923	이탈리아	Lausanne 대학교수, Italy의원	Manuale d'Economia Politica (1906)	시장의 효율성 및 분배이론
Wicksell	1851-1926	노르웨이	Lund대학 교수	Ueber Wert, Kapital und Rente (1898)	고정자본, 이자와 물가 관계 등
J.B.Clark	1847-1938	미국	Columbia 대학 교수	The Distribution of Wealth (1899)	한계생산성 분배이론
I.Fisher	1867-1947	미국	Yale대학 교수	The Rate of Interest (1907)	시간선호에 따른 소비 선택 및 이자론, 화폐와 이자

출처: Blaug and Sturges (1983), 각 항목.

으로 주요 기여자들이 모두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한 경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육과 연구를 하면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광대한 저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자신의 연구업적을 동료 학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로 나타난 것은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을 중심으로 한 좁은 의미의 신고전학파<sup>9)</sup>나 비엔나대학을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학파가 그러한 사례이다.

- (9) 한계혁명 이후 점차 주류경제학으로 등장한 경제학의 사조를 고전학파와 대비하여 넓은 의미로 신고전학파(the Neoclassical school)이라고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마셜을 중심으로 고전학파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한계주의적 이론을 절충한 경제학을 신고전학파라고도 부른다.

둘째, 경제학자 상호 간 연구 성과를 알리고 의견을 교환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이다. 경제학자들의 저작이 발간되고 이를 읽고 후속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에서 새로 이론을 개발하기도 했으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책을 발간하는 대신 각종 전문지와 학회 발표를 통해 연구업적을 알림으로써 지적 교류를 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지의 등장과 학회의 창설은 의견을 공유하고 공통된 견해가 정립되는 속도를 증가시킨 통로가 되었다.

셋째, 경제학 연구자의 지역별 분포가 점점 넓어지면서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초월하여 시장경제가 갖는 공통적 특징에 대해서 주목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각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생활에서 시장거래가 갖는 비중이 커지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별 역사적 특성보다는 시장경제로서의 공통된 특징이 전문가 간 더 큰 관심사가 될 가능성도 시사한다.

## 4. 유럽에서의 경제학 전문화와 한계혁명

### 4.1. 영국 경제학의 전문화와 신고전학파의 정착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로서 경제문제에 대해서 일찍부터 집중하여 논의하는 지식인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고전학과 경제학으로 불리는 경제이론체계가 성립할 정도로 경제학적 탐구의 결과를 공유하여 전파하는 경로가 발달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문화의 징표는 점진적이나, 19세기 말에 주요한 근대적 분과과학들의 전문화는 거의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학회 및 전문지 발달이라는 징표를 살펴보면, 17세기경부터 상당한 과학자들의 공동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60년에 과학자들이 모여서 왕립학회(The Royal Society of London for Improving Natural Knowledge)를 결성하여 과학지식을 논의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18세기 초에는 뉴턴(Isaac Newton)이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1830년대에는 600여 명의 회원이 있을 정도로 모임이 커졌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학회에서 발간되는 잡지(*The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는 1665년에 창간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지로 볼 수 있다. 이 잡지는 1886년에는 A, B 두 종류로 나누어 수학·물리학 분야와 생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주로 발간하게 되었다.

1831년에는 영국과학협회(the 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가 창립되어 과학적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과학적 탐구 관련 논의를 하였다. 이 협회는 초기부터 물리학, 화학 등의 분과(section)로 나누어 활동하면서, 점차 참가자가 다양한 분과를 늘려서 지구과학, 자연사, 인류학 등의 분야가 추가되었다. 1834년에는 왕립통계학회(The Royal Statistical Society)가 발족 되었는데, 이 학회의 창립회원으로 맬더스(Robert Malthus)가 참가한 바 있으며, 1862년 Jevons는 이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문지(*the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에 한계효용 가치론에 관한 수학적 탐구에 관한 글('The General Mathematical Theory of Political Economy')을 발간하였다.

영국경제학회(the British Economic Association)의 창립은 1890년에 이루어졌다.<sup>(10)</sup> 1883년 유니버시티 칼리지(University College)의 교수였던 폭스웰(H.S.Foxwell)과 경제학 사전을 편집한 바 있는 은행가 팰그레이브(R.H.I.Palgrave) 사이에 학회 창립 제안이 논의된 바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영국 경제학계의 중심인물인 마셜(Alfred Marshall)의 의견을 듣는 등 창립까지 시간이 걸려서 1887년에 창립된 미국경제학회(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보다 늦게 출발하게 되었다. 영국경제학회의 학술지(*the Economic Journal*)는 1891년에 발간되었는데, 당초 왕립통계학회의 전문지에 경제학 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것을 논의하다가 옥스퍼드대학 교수인 에지워드(Francis Ysidro Edgeworth)에게 편집을 맡겨 독자적인 전문지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Edgeworth는 잡지를 편집하면서 화폐 이론과 같이 대립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불편부당하게 게재하며, 과학적 탐구의 방법이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정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의 구성이나 운영방식에 관한 이러한 입장은 분과학문으로서 경제학의 인정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며, 전문가 집단이 특별히 어떠한 정치 사회적 입장과 연계되는 것을 기피 하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다음으로 전문화와 관련하여 대학에서의 경제학의 입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

(10) 영국 경제학회의 창립과 경제학의 전문화 과정에 대해서는 Coats (1968)을 참조. 이 학회는 창립 당시 British Economic Association으로 창립되었으나, 1902년에 시설과 활동 면에서 왕립학회의 요건에 맞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The Royal Economic Society라고 불리기도 한다. 초대 회장은 잉글랜드은행장을 지낸 바 있는 고셴(G.J.Goschen)이 맡았는데, 자유방임주의 성향 때문에 버나드 쇼(G.Bernard Shaw)의 비판을 받은 바 있으나, Marshall은 경제학자들도 모두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Goschen이 은행가라고 해서 회장직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 영국의 대학들은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졌으나 귀족 중심의 교육을 하던 케임브리지대학과 옥스퍼드대학을 중심으로 엘리트층을 충원하는 신분제적 방식이 유지되어 전반적으로 대학의 발전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었다.<sup>(11)</sup> 1850년대까지 잉글랜드 지역의 대학은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런던, 더럼(Durham) 등 4곳 밖에 없었으며, 스코틀랜드 지역에 같은 수의 대학이 설립되어 있었다. 케임브리지대학과 옥스퍼드대학의 경우에도 주된 교육은 신사(gentlemen) 양성을 위한 인문학과 같은 일반 교양교육과 종교인 양성을 위한 신학 교육 외 전문 분과과학 교육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문적’(professional)이란 의미도 어떤 학문 분야를 집중하여 교육받아 특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도덕적인 판단하에 균형된 지식을 사용하여 일하면서 금전적 이익보다는 명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1870년대에 이르러서는 지역 대학의 설립이 이루어지면서 영국 대학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1874년 요크셔(Yorkshire) 과학대학(College of Science), 1871년 뉴캐슬물리과학대학(Newcastle College of Physical Science), 1880년 버밍검 죠쉬 메이슨 칼리지(Josiah Mason College) 등이 설립되었다. 해당 대학은 유럽 대륙과 같이 대학에서 과학기술을 교육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다시 영국의 전통적인 대학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대학에서 자연과학과 실용적 학문이 도입된 것이다.

대학의 변화가 더딘 편이었고 영국에서 케임브리지대학 및 옥스퍼드대학의 영향력이 공고했기 때문에, 경제학계의 변화도 전체적인 대학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케임브리지대학의 마셜(Alfred Marshall)의 개인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Marshall은 1865년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수학 분야 졸업시험에서 2등으로 졸업한 후, 케임브리지대학, 브리스톨대학, 옥스퍼드대학 등에서 정치경제학과 도덕철학 등을 강의하다가 1885년에 케임브리지대학의 정치경제학 교수였던 포셋(Henry Fawcett)의 후임으로 교수직에 취임하여 1906년 은퇴할 때까지 경제학을 가르쳤다.

(11) 영국 대학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Halsey and Trow (2009)를 참조. 케임브리지대학과 옥스퍼드대학의 학생은 매년 수백 명 수준이었으며, 졸업생은 신학, 법학에 진출하거나 귀족의 가업을 계승하는 정도였다.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외에 1825년에 설립된 런던대학의 경우 좀 더 다양한 학생층을 입학시키고 교육도 실용적인 것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으나 교회 당국의 간섭으로 원활한 전환은 어려웠다. 영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과학기술과 경영에 관한 지식은 공장이나 기업 현장에서 숙련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대학에서 실용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서 늦었다고 한다.

당시 Marshall과 경제학 교수직을 놓고 경쟁하면서 케임브리지대학의 역사학 분야에서 강의하던 커닝햄(William Cunningham)과 경제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sup>(12)</sup> Marshall은 경제학이 경험과학이지만 각기 다른 상황에서 도출된 보편적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일반 법칙을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Cunningham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마셜은 어느 정도 귀납적이고 역사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연역적인 경제이론이 우선적으로 연구되고 교육 되는 것이 경제 분석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전문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은 1903년에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분야가 우등졸업시험(tripos)의 하나로 인정된 것이었다.<sup>(13)</sup> Marshall은 경제학이 독립적인 분과학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3년에 걸쳐서 가르치는 경제학 강의들에 대해서 시험을 치거나 소논문을 제출하여 경제학 분야의 학사학위를 별도로 받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 분야가 독립적인 학과로서 인정된 것과 마찬가지로인데, 그 이후 케임브리지대학은 경제학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가 되면서 영국 경제학계에 마셜의 제자들이 많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어, 케임브리지학과도 독자적인 경제학 연구 학과로 불릴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학과를 좁은 의미의 신고전학과(the Neoclassical school) 또는 신고전학과적 정통파(the NeoClassical Orthodoxy)라고 부르게 된 것도 분과과학으로서 경제학이 성립된 것과 큰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경제학의 전문화 과정을 연구한 Maloney(1976, 1985)는 Marshall을 비롯한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전문화를 주도한 것의 영향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경제문제를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탐구함으로써 전문적인 경제학 연구자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이 많아짐으로써 일종의 진입(entry) 장벽이 생겼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학적 탐구의 결과들이 누적되면서 후행 연구들은 선행연구의 성과에 의존하여 성과를 가질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오랜 경제학의 전통과 케임브리지대학의 독보적인 위상 때문

(12) Maloney (1976)은 Marshall과 Cunningham 간의 의견 차이가 독일 문화권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와 역사학과 간에 연역법 대 귀납법에 관한 방법논쟁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Marshall의 우세가 향후 영국 경제학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13)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오랫동안 수학만 독자적인 학사학위로 인정되다가 1850년대에 수학 이외의 분야도 가능하게 되어 자연과학 및 도덕과학이 졸업시험으로 추가되었다.



에 전문화와 한계혁명의 관련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경제학의 전통을 중시하고 새로운 연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수용하는 Marshall의 입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한계혁명 및 전문화의 특성도 모두 Marshall 개인의 입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Marshall은 케임브리지대학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정착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동시에 경제학의 전문화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영국 경제학계의 위상으로 볼 때 그 이후의 경제학 발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Marshall이 주도하는 케임브리지학파의 경제학이 영미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경제학의 교육을 지배했다는 점이다. 1890년에 발간된 Marshall의 「경제학원리(*Principles of Economics*)」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많은 대학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고, 가격이론에 관한 내용은 현재에도 경제학 교과서의 기본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즉 수요, 공급, 균형가격, 생산요소의 가격과 분배로 이어지는 체계는 부분균형 분석의 주요 내용으로서 교과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Marshall의 책 이름 자체에서 보듯이 종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라는 학문 분야의 명칭이 좀 더 좁은 의미의 경제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경제학(economics)이라고 변경되었다.

둘째, Marshall의 경제학은 경제학의 분석 방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가격이론 면에서 이러한 영향은 지속되었다. Marshall이 고전학과 생산비설과 한계주의자의 한계효용 가치론을 기간(period)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절충함으로써 모든 생산 부문의 수익률이 동일 상태인 고전학파의 장기균형(long-run equilibrium)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고, Walras의 단기일반균형(short-run general equilibrium)모형에서 제시된 바, 각 생산 부문의 수익률이 다른 단기일반균형이 중심적 분석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Milgate (1979) 및 홍기현(2007)에서 밝혔듯이, 가격설명의 중심적 분석대상이 단기균형으로 바뀌는 것은 1930년대에 이르러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Marshall 경제학의 절충적 방법론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Marshall은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채택하면서도 기계적인 수학의 적용보다는 생물학적 진화론이나 귀납적 역사연구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학문적 접근으로 인해서 결국 케인즈(J.M.Keynes)의 거시경제학과 같이 전체를 관찰하는 새로운 분야의 개척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14) Marshall의 경우 가격이론의 조정 변수로서 수량의 변화를 강조했으며 가격이 빠르게 작동

#### 4.2. 독일 문화권의 대학 발전과 사회과학의 전문화

근대적 대학의 모습은 산업적으로 후발 지역이었던 독일 지역에서 국민국가의 형성 움직임과 더불어 시작되었다.<sup>(15)</sup>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국력이 약했던 독일 지역에서는 계몽주의 운동의 하나로 대학이 지식과 인력 배출을 위한 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프로이센의 교육부 장관이었던 언어학자 훔볼트(Wilhelm Humboldt)는 대학이 알려진 지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써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여 1810년 베를린대학에서는 법학부, 의학부, 신학부, 철학부를 설치하고 베를린에 산재한 여러 학교를 통합하여 근대 종합대학의 원형을 만들었다. 그 이후 자연과학 분야의 여러 학과와 역사학과를 도입하였으며, 세미나, 실험, 발표를 통해 연구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였다.

독일 대학들이 연구 중심의 새로운 대학 체제를 도입하고 대학을 매개로 전문화를 달성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다른 국가들이 본받을만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전문화의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한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오랫동안 다수의 영주국과 자유시로 구성된 독일에서는 국민국가의 성립을 위한 정치·문화적 노력이 있었으며, 1871년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통합을 달성하게 된다. 이즈음부터 대학들도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배출하거나,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는 전문가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McClelland (2009)에 따르면, 오랫동안 대학에서 가르쳐오던 법학, 신학, 의학 분야에서 배출되는 법률가, 종교인, 의사 등의 전통적 전문가(old professionals)에 더하여, 자연과학, 공학, 경제학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new professionals)들도 대학에서 교과목을 가르치고 협회를 만들어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받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새로운 전문가 집단의 등장에 대해서 전통적 전문가들의 반대도 있었으나, 국가에 의한 대학 육성 정책에 힘입어 상당수의 분야가 대학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경제학 분야의 경우에는 주로 법학 교육과 연계하여 국가 운영에 관해서 교육하고 공

---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규모가 변화하고 기술이 변화하는 장기에서는 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했다. 이러한 접근이 Keynes의 유효수요이론과 부합한다는 케임브리지대학의 전통에 따른 Milgate (1982)의 해석을 참고할 만하다.

(15) 유럽 대학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허준(2020)을, 독일 대학의 역사에 대해서는 McClelland (2009)을 참조.

공부문에서 일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을 하게 된다.<sup>(16)</sup>

이에 따라 1870년대 독일 통합 이전에 독일 민족의 역사나 경제적 발전을 경험적으로 탐구하던 역사학과의 사조가 지속되면서, 통합 이후에는 국가발전의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조류가 지배하게 된다.<sup>(17)</sup> 역사학과 경제학자들은 1872년에 사회정책협회(Verein für Sozialpolitik)를 결성하여 주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탐구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 협회는 이후 미국경제학회나 일본 경제학회를 결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주로 대학교수들이 역사학과 경제학자로서 참여하였다.

전문가들의 협회 결성과 함께, 전문적 논의를 위한 잡지 발간도 이루어졌는데, 1871년에 발간되었다가 1877년에 슈몰러(Gustav Schmoller)가 편집하면서 경제 분야가 포함되도록 이름을 바꾼 「독일 왕국에서의 입법, 행정 및 국민경제 연보(Jahrbuch für Gesetzgebung, Verwaltung und Volkswirtschaft im Deutschen Reiche)」와 1892년에 창간된 「국민경제, 사회정책 및 행정을 위한 잡지(Zeitschrift für Volkswirtschaft, Sozialpolitik und Verwaltung)」가 있다.

신역사학과의 중심인물인 Schmoller는 베를린대학에서 오랫동안 역사학과 경제학을 가르쳤는데, 경제 제도의 발전과 국가의 경제정책을 탐구하는 것이 주된 연구 성과였다. 특히 Schmoller는 고전학과의 자유주의적 사조나 신고전학과의 연역적인 경제원리 탐구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오스트리아학과의 Menger와 방법논쟁(Methodenstreit)를 벌이게 된다. Menger가 1883년에 출간된 책에서 독일 역사학파가 특정한 지역에서 적용되는 원리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16) 역사학과의 중심인물인 Schmoller의 경우에도 튀빙겐대학에서 행정학(Kameralwissenschaft)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법학, 경제학, 역사학, 공공행정 분야를 융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었다. 현대의 행정학이라기보다는 공직을 위한 직업교육으로서 독일어를 그대로 번역하자면 소위 왕정의 관료가 되기 위한 관방학이다.

(17) 독일의 지배적인 사조인 역사학과 경제 사상을 1870년대의 독일 통합 이전의 구역사학과(the Old Historical School)과 통합 이후의 신역사학과(the New Historical School)로 구분하는데, 귀납적·역사적 방법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변화는 없고 관심 주제가 독일 지역의 경제발전단계를 탐구하던 것에서 국가 운영 관련 탐구하는 것으로 변화된 차이가 있다. 독일의 역사학과 경제학자들이 국가 정책에 깊이 개입되어 특정한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한 것에 대해서 독일 자유주의 사상가 오펜하임(Heinrich Oppenheim)은 “강단사회주의자(Kathedersozialisten)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하였다. 독일 역사학과의 국가주의적 학문적 성향에 대해서 역사학과 내에서도 가치중립적 학문을 지향하는 베버(Max Weber)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되기도 하여 소위 가치판단 논쟁이 일어난 바 있다.

비판을 하자, Schmoller가 이 책에 대한 서평에서 순수한 이론이란 비현실적 가정에 입각한 것으로서 실제 경제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비판하였다.<sup>(18)</sup>

독일 문화권에서 역사학과와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적 차이로 인해서 독일 역사 학파들은 독일 대학에서 오스트리아학파적인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을 막았으며, 이 때문에 오스트리아학파가 중심이 된 한계주의적 접근은 독일 대학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독일 문화권의 경우 대학의 발전과 전문화 과정 내에서도 역사학파적 접근이 지배적인 사조인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사회과학의 전문화가 국가 중심의 관방학적 영역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5. 미국에서의 경제학 전문화와 한계주의자의 등장

### 5.1. 미국에서의 경제학 전문화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경제학이 유럽 대비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낮았으며, 아이비리그(Ivy League)의 오랜 대학들은 영국 고전학과 경제학을 교양 수준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이때 미국은 경제발전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보호무역적인 기조가 유지되고 있었다. 1862년 모릴법(Morill Act)에 의해서 공학과 농학 교육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중남부 지역의 각주에 대학 설립을 지원하면서 대규모 토지를 양여(Land grant)하여 주립대학이 설립되고 산업화를 통해서 재산을 축적한 민간 기업가들이 19세기 말 기부를 통해서 시카고(Chicago), 스탠포드(Stanford) 등 사립대학을 설립하면서 대학 교육이 발전하기 시작했다.<sup>(19)</sup> Barber (1988)에서 논의되었듯, 1876년 볼티모어(Baltimore)의 상공인들이 설립한 존스홉킨스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는 독일의 연구 중심 대학을 본받아 세미나 방식의 대학원 교육을 도입했는데 이러한 방식이 새로 설립된 대학들에 영향을 주면서 전문적인 학문 연구가 활발해졌다.

(18) 오스트리아학파의 Menger와 역사학파의 Schmoller 간에 벌어진 방법논쟁에 관해서는 홍기현(2010), Yagi (1997)을 참조. Menger의 책은 「사회과학, 특히 정치경제학에서의 방법에 관한 탐구(Untersuchungen über die Methode der Sozialwissenschaften, und der Politischen Oekonomie insbesondere)」이다.

(19) 미국의 대학 발전과 경제학 전문화 과정에 대해서는 홍기현(1995), 그 이전의 경제학 도입에 대해서는 O'Connor (1953)의 연구를 참조.

대학의 발전과 함께 전통적인 교육보다 실용적인 교과과정의 활발한 도입으로, 1870년대에 각 학교에서 연간 수십 시간 정도 가르쳐왔던 경제학 분야의 교육이 1890년대에 이르러서는 수백 시간 이상 교육하게 되면서 경제학 분야 교육 시간이 6 배 이상 증가하였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 경제학이 독립적인 분야로서 학과나 학위 과정을 통해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새로 설립된 대학에서는 독일의 세미나 방식이 도입되면서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교육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독일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제학자들이 상당수 채용되었다.

독일에서 유학한 경제학자들은 독일 역사학파의 영향을 받아 정부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주장하였고, 독일의 경제정책협회를 본받아 1885년에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를 설립하였다.<sup>(20)</sup> 미국경제학회 창립의 중심인물인 엘리(Richard T. Ely)는 창립 이후 학회의 사무국장(secretary general)으로서 미국경제학회가 경제문제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그렇지만, Ely의 개입주의적 성향 때문에 전통적인 대학의 교수들의 반대로 결국 사무국장직에서 사직하고 중립적인 인물들이 학회 운영을 맡게 된다.

19세기 말 대학이 성장하면서 대학을 설립한 설립자나 재단이나 공립대학의 이사회와 대학 교원 간에 갈등도 증가하는데, 이 때문에 대학교수의 학문적 자유를 탄압하는 사건(academic freedom case)이 발생하게 된다.<sup>(21)</sup> 대표적인 사례로 1896년 시카고대학의 경제학 강사로 채용된 베미스(E.Bemis)는 노동운동을 옹호하는 강연을 하다가 시카고대학의 관리자인 총장과 이사회에 관여하는 기업인들로부터 비판을 당하고 사직을 하게 된다. 노동운동 옹호 이외에도 앤드류스(E.P.Andrews)의 경우와 같이 화폐 자유발행 운동을 지지하거나 애덤스(H.C.Adams)나 코몬스(J.R.Commons)처럼

(20) 미국 경제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 대해서는 Coats (1950)의 연구를, 전문화 과정에서 미국경제학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Coats (1985)를 참조. 미국경제학회 창립 당시 현장에는 자유방임주의는 불안정하므로 정부 지원이 진보의 조건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상당한 반대로 인해서 이 내용은 삭제되게 된다.

(21) Bemis의 갈등 사례는 Bergquist (1972)를 참조하면 되고, 그 밖의 주요 학문 자유와 관계된 갈등 사례는 Metzger (195)를 참조. Bemis는 미국경제학회에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알리고 도움을 얻으려고 했으나, 학회에서는 개별적인 갈등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학문 자유 탄압 사례는 진보적인 제도학과 사회과학자와 대학 당국과 사이에 주로 발생했지만, 반대로 1894년 캔자스 주립대학의 경우와 같이 급진파 정치인들이 주 의회를 장악한 후 보수적인 입장의 교수의 계약을 파기한 사례도 있다.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기업을 비판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대학 당국과 관련된 인사들의 정치적 입장과 갈등을 일으켜서 해직이나 사직을 하게 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갈등의 결과, 대학 내부에서는 가급적 국지적 이해(local interest)에 연계된 사회적 비판을 삼가고 학문공동체에서 공통으로 수용될 수 있는 내용 중심의 학문 활동이 전문가 공동체 정체성(identity)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학문적 풍토를 Furner (1975)는 학자들의 ‘경력주의(careerism)’라고 하고, Coats (1985)는 ‘전문가적 보수주의(professional conservatism)’라고 부르고 있다.

전문가적 보수주의는 의견상 대학 당국자의 탄압에 대해서 대학교수들이 사회적 발언을 자제하는 대응으로 볼 수도 있으나, 넓은 맥락에서 보면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학문적 과정을 통한 사회적 기여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대학의 운영 방식에 관해 일정한 규율을 만드는 제도화(rule-setting institutionalization)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Ross (1991)는 전문가적 보수주의로 인해서 미국 경제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는 한계주의적 경제학이 자리를 잡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대학의 제도화와 풍토가 곧바로 특정한 경제학적 접근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연구의 절차나 방법, 대학 교원에 대한 평가 방식의 발전, 학문공동체에서의 지배적 연구방법론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학문공동체의 형성 경로에서 전문지 역할의 중요성은 큰 시사점을 가진다. 전문화 과정에서 학문적 업적의 발표와 의견 교류가 전문지 중심으로 되면서 전문지에서의 동료 평가가 학문적 업적의 성공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고, 이에 따라 전문지에 발간하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 없는 방식, 즉 ‘발간하지 않으면 사멸(publish or perish)’하는 평가 방식이 정착된 경우, 특정한 사조의 연구방법론이 특정한 전문지와 이를 통해서 형성되는 학문공동체에 지배적인 사조가 되는 경로가 확립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886년 하버드대학에서 창간된 계간지(*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나 1892년에 발간된 시카고대학의 전문지(*Journal of Political Economy*)의 역할이 점점 커진 것을 보면 이러한 경로를 관찰할 수 있다.

## 5.2. 미국에서의 한계주의자의 등장

경제학의 후발국인 미국에서 한계주의적 경제학이 등장한 것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경제학이 유입된 것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전학과 경제학, 역사학

파 경제학 등 다양한 경쟁적 사조가 있는 상태에서 한계주의적 경제학이 느리지만 점차 득세하게 된 것은 단순한 유입으로만 설명되기는 어렵다. 한계주의자들이 뚜렷한 흐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수학 등의 자연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분석하려는 미국 경제학자들의 독자적인 노력과 경제학과의 설립 과정에서 점차로 한계주의적 접근을 하는 학자들이 서서히 학계에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은 이미 〈표 5〉에서 소개된 Clark와 Fisher 이외에 한계주의적 경제학에 기여한 미국의 학자들을 소개한 것이다. 〈표 6〉에서 보듯이 미국에서 한계주의적 접근은 어떤 중심적 인물이 있었다기보다는 다양한 학자들의 기여가 여러 대학에서 영향을 주면서 서서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연구 성과를 올린 사람은 클라크(John Bates Clark)와 어빙 피셔(Irving Fisher)이다.<sup>(22)</sup>

Clark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역사학과 경제학자 크니스(Karl Knies)의 지도를 받은 바 있다. 그 이후 미네소타의 칼튼칼리지(Carleton College)에서 가르치다가 동부 지역의 스미스칼리지(Smith College), 앰허스트칼리지(Amherst college boards), 그리고 마지막에는 콜럼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의 교수가 되었다. Clark는 연구 경력의 초기에는 독일 역사학파의 영향을 받아 자본주의적인 죽기 살기식(cut-throat)의 경쟁이 공동체의 일체감을 파괴하므로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므

〈표 6〉 미국의 한계주의자들

성명	연도	경력	경제학적 기여
S.Newcomb	1835-1909	Johns Hopkins 대학 천문학 교수	한계효용가치론
Stuart Wood	1853-1914	Harvard대학 졸업, 사업가	한계생산성분배이론
H.J.Davenport	1861-1931	Cornell대학 교수	가격 기구 분석
F.Fetter	1863-1949	Princeton대학 교수	주관적 가치론
D.I.Green	1864-?	Kenyon대학 교수	한계생산성분배이론
T.N.Carver	1865-1961	Harvard대학 교수	기업 활동 분석
H.L.Moore	1869-1958	Columbia대학 교수	수요·공급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출처: 홍기현(1998), p.190.

(22) Clark와 Fisher의 분배이론, 특히 두 학자의 연구경력 및 이자이론에 대한 비교는 홍기현(1998)을 참조. Clark 자본이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홍기현(2018)을 참조.

로 도덕적 힘에 바탕을 둔 입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러한 사고는 1886년에 발간된 「부의 철학(*The Philosophy of Wealth*)」에 나타난다.

그러던 중 Clark는 점차로 독과점적 담합이나 정치적 과정을 통한 부당한 개입이 없다면 자본주의적 경쟁이 경제발전에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시장경제에서 한계생산성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정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탐구는 한계생산성 분배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그는 노동에 대한 임금이 한계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자본에 대한 이자도 집계적자본(*aggregate capital*) 최종적 한 단위의 증가분인 한계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공식을 경제학 계간지(*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를 통해서 발표하였다. Clark의 자본이론에서는 각종 다양한 자본재가 있는 경우 어떻게 집계적자본을 계산할 것인지를 엄밀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1960년대에 소위 자본논쟁(*capital controversy*)에서 비판되지만,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알기 쉬운 형태로 한계생산성 분배이론의 골자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lark의 사상이 개입주의적 입장에서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상의 변화인지, 아니면 경제문제에 집중하여 분석하게 된 강조점의 차이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sup>(23)</sup> 이러한 엇갈린 평가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해석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Clark의 연구 관심사에서 외형상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전문화 과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다. Clark가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던 초기에는 경제학 전문지보다는 시사적인 잡지에 글을 많이 발표했으나, 동부 지역의 우수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부터 경제학 전문지에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더 좋은 대학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자이론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낸 Fisher의 경우를 보면, 한계주의적 분석이 더욱 잘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sher는 예일대학(*Yale University*)에서 수학을 공부했는데,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을 엄밀한 수학 모형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학위 취득 후 Fisher는 예일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이자이론 및 물가이론에 대한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또한, Fisher는 무

(23) Clark의 사상이나 이론체계가 근본적 변화를 했다는 해석으로는 Tanaka (1990)와 Jalladeu (1975)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 Clark의 아들 존 모리스 클라크(*John Moris Clark*)를 비롯해서 Henry (1982, 1983) 등 상당 수 학자들은 이론적 강조점이나 분석상 관심사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홍기현(1998)을 참조.



차별곡선을 이용하여 현재재(present good)와 미래재(future good)의 선택 문제를 정형화한 후, 현재재와 미래재의 가격이 이자율로 결정됨을 분석했다. 이 분석을 통해서 Fisher는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이 시점 간 거래(intertemporal transaction)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결국 신고전학파에서 표준적인 가격이론의 원형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Fisher는 분배이론을 개발하면서 시장경제의 윤리적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목적을 갖기보다는 가격기구의 작동을 개인의 행동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Fisher의 입장은 1910년에 발간한 경제학 교과서(*Elementary Principles of Economics*)에 나타난다. 즉, 그는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당파적 입장에서 경제문제를 탐구하기에 앞서서 경제원리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Clark와 Fisher의 연구 성향을 비교해보면, 후대의 Clark가 순수한 경제이론분석에 집중하면서도 여전히 자본에 대한 소득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Fisher는 가격 현상의 하나로서 요소의 소득을 균형분석으로 설명하는데 초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연구 범위나 절차가 상당히 한정적으로 변화된 추세에 따라 생긴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Fisher 개인은 보건학에도 관심이 있었고, 물가 변동을 설명하는 경험적 연구도 했으므로, 현재 세분화된 경제학계와 같이 미시경제학자라고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학계에서 공통으로 수용되고 평가되는 연구 영역이 점차로 특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한계주의적 경제학적 탐구와 교육이 점차 정착한 것은 유럽에서의 전반적인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대학의 발전과정에서 독일의 영향이 크고, 경제학계에서도 독일 역사학파의 영향으로 제도학과 경제학자들이 각 대학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한계주의적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전학파 경제학을 대체할 수 있는 이론체계로서 제도학과 신고전학파가 대안으로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학계에서 점차 신고전학파의 입지가 강화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역사학과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 경제학이 분과과학으로 정립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경제학의 전문화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화가 원천적으로 어떤 특정한 학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학의 제도화와 학계 내 전문가 집단의 문화 형성 과정에서 경제학자 간 동의를 어려운 국지적 주제보다는 보편적 이론이 성과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교류의 속도도 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

할 만하다.

## 6. 맺음말: 전문화의 양상과 한계혁명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경제학의 전문화와 한계혁명의 관계는 복합적이다. 경제학의 전문화이든 경제이론의 성격 변화이든 모두 대학의 발전과 분과학문의 성립, 연구자 공동체의 형성, 그리고 사회적 여건과 국가의 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문화 및 한계혁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한정하여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국의 경제학 전문화 과정을 비교 검토하면서 한계혁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학문의 중심이었던 케임브리지대학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1885년에 케임브리지대학의 교수가 된 Marshall은 경제학을 분과학문으로 성립시키는 노력을 하여 1903년에 경제학 분야가 우등졸업 시험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고, 상당수의 학자를 양성하여 영국의 각 대학에 진출시켰다. 또한 Marshall은 영국 경제학회 설립에도 관여하였고, Maloney (1985)의 설명대로 경제학 연구자들의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설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1890년에 발간된 「경제학 원리」는 영미 대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경제학 교과서가 되었는데, 가격이론 면에서 그 내용은 고전학과 생산비설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개발된 한계효용 가치론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독일 문화권에서는 대학이 일찍부터 국민국가 형성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려는 역할을 하였는데, 학문적 성향은 국민경제의 단계적 발전을 귀납적으로 설명하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들과 방법론적 대립이 생기게 되지만, 독일의 경우 역사학파가 지배적인 사조가 되었고 미국의 제도학과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대학의 발전이나 학회 설립 등은 독일 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자유주의적 고전학과 경제학이 오랫동안 대학에서 가르쳐왔던 상황에서 한계주의적 경제학과 제도학과 경제학이 혼재하면서 경제학계를 형성하게 된다.

〈표 7〉은 지금까지 설명한 유럽 및 미국에서의 경제학 전문화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표 7〉에서 보듯이 유럽과 미국에서 1890년대 이후 경제학의 전문화는 뚜렷해지

지만 한계주의적 접근에 주는 영향은 복잡적이라 전문화가 한계혁명을 가져온 가장 중대한 환경적 요인이라고 단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2차 대전 이후까지의 긴 기간의 경제학계의 변화 양상을 볼 때 경제학의 전문화는 한계주의적 경제학의 보급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연구자 간의 성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연구 성과의 평가가 전문지 중심으로 변화하며,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시장경제의 공통적 특성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시장경제에서의 가격기구를 잘 탐구하고 있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입지는 점점 커질 소지가 컸다고 말할 수 있다.

좀 더 장기간 지켜봤을 때, 1870년대에 시작된 경제학의 변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신고전학과와 시대를 형성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첫째, 1870년대에서 19세기 말까지의 30년을 두고 보면, 새로 제시된 한계효용 가치론이 가격이론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고 개체주의적 분석 방법이 분배이론에까지 적용되어 재화 가격과 요소 가격이 통일된 이론체계(the unified theory) 하에서 일관되게 설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계혁명 추진자 3인인 Jevons, Walras, Menger가 제시한 한계효용 가치론은 Marshall의 경제학에 수용됨으로써 ‘한계혁명’은 완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Marshall은 고전학과적인 생산이론의 바탕이 되는 기업조직의 변화 등과 관련 연구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계혁명 3인조의 시도는 당시 경제학을 주도하던 영국 경제학계 및 이를 따르던 다른 경제학계에 한정해서 보면 전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둘째, 20세기 초에서 1930년대까지의 30년간은 넓은 의미의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유럽 및 미국에서 보급되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한계주의적 접근이 적용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역사학파나 미국의 제도학과와 공존이 일어나

〈표 7〉 경제학 전문화의 양상

지역	대학 및 분과	학회	전문지	특징
영국	Cambridge대학 우등 졸업시험 도입(1903)	영국경제학회 설립(1890)	<i>Economic Journal</i> 창간(1891)	Cambridge대학의 Marshall 중심
독일어 문화권	1870년대 연구중심대학, 법학 교육과 연계	사회정책협회 (1872)	Schmoller 연보 편집 시작 (1877)	국가정책 제안에 관심 및 역사학과와 오스트리아학파의 대립
미국	연구 세미나 교육을 도입한 John Hopkins 대학 설립(1876)	미국경제학회 창립(1885)	<i>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i> 창간 (1886)	제도학과와 신고전학과의 경쟁적 병존

출처: 저자 작성.

지만, 점차 넓은 의미의 신고전학파적 방법론이 보급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고전학파의 정착을 가져오는 제2세대 한계주의자들의 성과는 ‘신고전학파 혁명’을 가져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1930년대 이후 가격이론에서 Walras식의 일반균형이론이 점차 주목을 받아서 결국 가격이론의 표준적 이론이 되는데, 한계혁명의 추진자 3명 중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이 표준적인 이론으로 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방법론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홍기현(2007)에서 설명했듯이 결국 연역적 개체주의라는 특성이 경제학의 연구 절차로 많은 경제학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다른 사회과학과 경제학의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간략히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전문화와 더불어 경제학의 국제화가 커다란 환경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1930년대 유럽의 혼란기에 유럽의 우수한 경제이론가 상당수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대학에 자리 잡게 되면서 신고전학파적 이론 개발에 큰 성과를 기여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의 개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신고전학파적 연구 절차와 연구 방법을 통해 한 사람의 연구 성과 위에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가 비슷한 방향으로 누적되면서 넓은 의미의 신고전학파라는 이론적 경향이 뚜렷하게 되는 방향으로 경제학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학문의 전문화가 사전적으로 이론체계를 특정한 방향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여러 분과학문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분과학문에서는 특정한 연구 방법을 추구하는 학자들의 결집에 따른 연구 방향의 쏠림 현상은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홍 기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51-74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880-6379

메일: hongk@snu.ac.kr

## 참고문헌

- 강명규(1973): “한계혁명의 경제학설사적 일 연구,”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2, 3**, 1-84.
- (1977): “한계혁명과 고전파경제학,” 『효강 최문환 박사 추념논문집』, 7-26.
- 허준(2020): 『대학의 과거와 미래』,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홍기현(1989): “미국의 경제학교육과 연구,”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8**, 4, 393-421.
- (1995): “미국의 경제학 도입과 발전-초기 한계주의자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경제사학회, **19**, 253-278.
- (1998): “미국 한계주의자에 대한 연구: 클라크와 피셔를 중심으로,”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한국경제학사학회, **1**, 185-215.
- (2007): “1930년대 균형개념과 가격이론의 변화에 대한 학설사적 평가,”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46, 3**, 155-171.
- (2010): “1890-1930년대 경제학계 논쟁에 대한 방법론적 평가: 오스트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49, 3**, 139-164.
- (2018): “이윤 및 이자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사적 연구,”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57, 1**, 3-38.
- Barber, William.(ed.)(1988): *Breaking the Academic Mould*,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 Bergquist, H.(1972): “The Edward W. Bemis Controversy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AAUP Bulletin* **58**, 384-93.
- Black, R.D. Collision, Coats, A. W., and Goodwin, Craufurd D.W.(ed.)(1973): *The Marginal Revolution in Econom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Blaug, Mark and Paul Sturges(1983), *Who's Who in Economics, A Biographical Dictionary of Major Economists, 1700-1981*, Brighton U.K., Wheatsheaf Books Ltd.
- Blaug, M.(1985):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4th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rk, J. B.(1886): *The Philosophy of Wealth*, New York, Macmillan.
- (1899): *The Distribution of Wealth*, New York, Macmillan.

- Coats, A. W.(1960): "The First Two Decades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0**, 4, 556-574.
- (1968): "The Origins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Royal Economic Society," *The Economic Journal*, **78**, 349-371.
- (1980): "The Culture and the Economists: Some Reflections on Anglo-American Difference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2**, 4, 588-609.
- (1985):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nd the Economics Profess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3**, 4, 1697-1727.
- Dorfman, R.(1995): "Austrian and American Capital Theories: A Contrast of Cultures,"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17**, 1, 21-34.
- Ekelund, Jr, Robert B. and Hébert, Robert F.(2007): *A History of Economic Theory and Method*, 5th ed., Illinois, Waveland Press.
- Fisher, I.(1907): *The Rate of Interest: Its Nature, Determination, and Relation to Economic Phenomena*, New York, Macmillan.
- Furner, M. O.(1975): *Advocacy and Objectivity: A Crisis in the Professionalization of American Social Science, 1865-1905*,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 Goodwin, C.(1973): "Marginalism Moves to the New World," in Black, Coats, and Goodwin(ed.), *The Marginal Revolution in Economics*, 285-304.
- Halsey, A. H., & Trow, M. A.(2009): "The Evolution of the British Universities," in Roy Lowe(ed.), *The History of Higher Education*, New York, Routledge, **5**, 77-100.
- Henry, J. F.(1982): "The Transformation of John Bates Clark: An Essay in Interpretation,"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4**, 2, 166-177.
- (1983): "John Bates Clark and The Marginal Product: An Historical Inquiry into the Origins of Value-Free Economic Theory,"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5**, 3, 375-389.
- (1990): *The Making of Neoclassical Economics*, Boston, Unwin Hyman.
- Hollander Samuel(1987): *Classical Economics*, Oxford, Basil Blackwell Inc.
- Jalladeu, J.(1975): "The Methodological Conversion of J.B.Clark",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7**, 2, 209-226.
- Jevons, W. S.(1871):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London, Macmillan.

- Kuhn, Thomas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77), “Objectivity, Value Judgement, and Theory Choice”, in T.S.Kuhn ed., *The Essential Tension*, 319-391.
- Lakatos, Imre(1978):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신중섭역,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의 방법론』, 아카넷, 2002.
- Maloney, John(1976): “Marshall, Cunningham and the Economics Profession,” *Economic History Review*, **29**, reprinted in J.C.Wood, ed., *Alfred Marshall: Critical Assessments*, Vol.4, London, Croom Helm Ltd, 273-284.
- (1985), *The Professionalization of Economics: Alfred Marshall and the Dominance of Orthodox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shall, A.(1890):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Macmillan.
- McClelland, C. E.(2009): “Professionalization and Higher Education in Germany,” in Roy Lowe(eds.), *The History of Higher Education*, New York, Routledge, **3**, 250-266.
- Menger, C.(1871): *Principles of Economic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Metzger, W.P.(1955): *Academic Freedom in the Age of the Univers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gate, M.(1979): “On the Origin of the Notion of Intertemporal Equilibrium,” *Economica*, **46**, 1-10.
- (1982): *Capital and Employment: A Study in Keynes's Economics*, London, Academic Press.
- Negishi, Takashi(1989): *History of Economic Theory*,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 Rima, I.H(1978): *Development of Economic Analysis*, 3rd ed., Homewood, Richard Unwin Inc.
- Ross, D.(1991): *The Origins of American Social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uelson, P. A.(1994): “Two Classics: Böhm-Bawerk's Positive Theory and Fisher's Rate of Interest Through Modern Prisms,”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16**, **2**, 202-228.

Senn, Peter R.(1996): “Sombart’s Reception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in Juergen Bakhaus, ed., *Werner Sombart: Social Scientist*, Marburg, Metropolis Verlag, 111-286.

Stigler, G. J.(1973): “The Adoption of Marginal Utility Theory,” in Black, Coats, and Goodwin(eds.), *The Marginal Revolution in Economics*, 305-320.

Tanaka, T.(1990): “The Economic Thought of J.B.Clark”, in Moggridge ed.,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Economics Thought*, Vol.3.

Tobin, J.(1985): “Neoclassical Theory in America: J. B. Clark and Fisher,” *American Economic Review*, **75**, **6**, 28-38.

Walras, L.(1874): *Elements d’Economie Politique Pure*, translated by W. Jaffe, *Elements of Pure Economics*, London, Allen and Unwin, 이승무역, 『순수정치경제학 요론』, 지식을 만드는 지식, 서울, 2021.

Yagi, Kiichiro(1997): “Carl Menger and the Historicism in Economics,” in Peter Koslowski ed., *Methodology of the Social Sciences, Ethics, and Economics in the Newer Historical School*, Heidelberg, Springer, 231-58.



**Abstract****The Professionalization of Economics and the Marginal Revolution**

Keehyun Hong

As economics became one of the major subjects taught in the universities the United Kingdom and European countrie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question naturally arises how the professionalization of economics had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economics.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explains the professionalization process in the Anglo-Saxon and German cultures and tries to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the professionalization of economics and the Marginal Revolution. The major finding is that there is no direct one-to-one relation between the professionalization and the Marginal Revolution, since there are cultural differences across different academia of different countries. However, we also find that the professionalization of economics prompted to spread the marginal analysis across countries by providing channels in which new theoretical contributions of neoclassical economics are discussed,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Keyword:** Professionalization of Economics, The Marginal Revolution, Neoclassical Economics, American Economics

